

## 진해구 여좌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마을기업 설립 시동

뉴스일자 : 2018-04-02 15:59:44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진해 여좌천.(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회장 이영순)는 지난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10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를 맞아 지역 관광명소인 여좌천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체 제작한 로망스 마을지도 1만5000부를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군항제 기간 동안 엽서와 벚꽃 핀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벚꽃 핀과 화관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영순 회장은 “사업 수익금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계층 공감 마을 학교와 아름다운 골목 디자인 공모전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호관 여좌동장은 “마을지도를 통해 관광객들이 군항제기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여좌동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민간주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내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18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